

코로나19 지원금 '울산페이'로 지급...가입자 폭증

울산시, 구매할인율 5%→10% 확대 적용 구매한도도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화폐인 울산페이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와 울산시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이 대부분 울산페이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페이 구매할인율이 5%에서 10%로 확대 적용된 3월부터 가입

문의와 체크카드 신청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할인 이전인 2월까지 하루 평균 140여명에 불과하던 울산페이 가입자가 3월부터 2000여명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사용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와 울산시, 구·군의 각종 지원금이 울산페이로 지급된다는 소식

이 나온 이후이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상권 지원을 위해 10일부터 울산페이 구매할인율을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에 한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60%(전통시장 사용은 80%)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울산페이 체크카드 신청은 울산페이 앱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2~3일 이내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고, 인근 KEB하나은행을 방문

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권 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점포 1만개 업체에 업체당 100만원씩 울산페이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매출 총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피해 업체이다. 지원 신청은 17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소상공인 중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1만개 업체를 선정해 5월 1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또 여행, 관광 숙박·운송, 공영업 등 특별고용 지원업종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등록한 업소와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보유한 400개 업소를 선발해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빠른 지원을 위해 조만간 울산일자리재단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나 운영점포의 재개장에 필요

한 비용을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기존 점포철거 및 원상회복시 200만원 한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180만원 한도 지원,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지원 등의 정부사업도 '울산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주관으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울산시의 코로나19 특별지원으로 마련된 울산페이 구매 할인 10% 행사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구매로 위축된 지역 경기도 살리고 가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괴산군, 사과 약제 적화법 교육 동영상 무료제공

노동력 문제 해결·인건비 절감 효과 기대



충북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부족한 사과 재배농가에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하는 동영상은 약제를 이용

한 적화법이다. 적화란 필요 없는 꽃을 미리 솎아 소모되는 저장양분을 최소화하는 작업이다. 4~5월은 사과 적화를 하는 시기로 이 기간은 1년 인건비의 30%가 발생할 만큼 많은 노동력이 필요

하다. 과수농가는 매년 이 시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입국이 어려워져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노동력 문제 해결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한국과 수병해충예찰센터와 손잡고 노동력이 없어도 효율적으로 적화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동영상을 오는 30일까지 유튜브에 무료로 제공한다. 550개 농가의 노동력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동영상을 여러 번 시청해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적시에 약제 적화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울산시, 3D프린팅 강소기업 울산 이전...제품 양산화 박차

울산시가 3D프린팅 기술 강소기업들과 기업 이전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통해 3D프린팅 제품 양산화에 본격 착수한다. 울산시는 지난 9일 오후 상황실에서 ㈜에이원우주항공, 한국핵사곤 메트몰로지(유), 3D프린팅 합작법인 ㈜글로윈즈 대표 등 강소기업 대표와 수요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업이전 및 기술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협약에는 수요기업인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참석해 자동차산업 분야 3D프린팅 제품 양산 사례와 시장성에 대해 발표한다.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둔 에이원우주항공은 올해안에 울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이하 본사) 이전한 뒤 본격적인 생산라인 구축에 나선다. 특히 울산 공장은 현재 장비 외에도 신규로 27억원 규모의 정밀 가공기계 등 10여종을 추가로

구축해 정밀성이 요구되는 대형 기계가공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할 예정이다. 스페넌에 위치한 의료장비 전문기업인 핵사곤 그룹의 한국 지사인 한국핵사곤 메트몰로지는 올해 안에 울산 지사와 센터를 설립한 뒤 2021년에는 기존 창원과 용인 센터까지 순차적으로 흡수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3D프린팅 검·교정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에 검·교정 센터가 완공되면 자동차, 항공, 중공업, 기계, 금형 등의 3D프린팅 제품에 대한 교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밖에 기존 제조업과 3D프린팅 기술융합을 위해 3D프린팅, 기계가공, IoT기술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전문 기술을 보유한 울산 지역 8개 기업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즈는 OMT(Optimizing Manufacturing TEAM in

ULSAN)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국 최초로 제조업 공정개발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최대 규모 3D프린팅 특화 집적지인 울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의 인프라 활용을 위해 올 10월 준공되는 3D프린팅 벤처 집적 지식산업센터에 각 기업의 지사와 공동 사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제품 양산화 공장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합작법인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라오닉스는 현대자동차와 수요연계형으로 진행 중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사업을 통해 3D프린팅 기업 최초로 자동차 1차 벤더로 등록된 뒤 부품을 양산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으로 3D프린팅 시장에서의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유나 기자**

"벚꽃, 영상으로"...인천대공원·월미공원 드론촬영 영상 공개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공원폐쇄로 벚꽃구경이 힘들어진 시민들을 위해 영상으로 봄 풍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인천대공원·월미공원의 벚꽃 풍경을 드론으로 촬영해 10일부터 시 홈페이지·SNS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영상은 사람의 눈높이는 물론 드론을 통해 하늘

에서 내려다 보는 풍경까지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인천대공원은 40년 이상된 대형 왕벚나무 800여 그루가 1.2km에 걸쳐 터널처럼 연결돼 있어 봄철이면 하루 평균 5만여명이 방문한다. 월미공원 역시 2.3km 산책로를 따라 1000여 그루의 벚꽃길이 펼쳐져 있어 봄철 하루 평균 1만여명이 몰린다. 지난해 4월 인천대공원에 111만여명, 월미공원에 24만여명이 다녀갔다. 영상 제공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지난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이들 공원을 폐쇄해 현장에서 벚꽃구경이 힘들어진 시민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기 위한 조치다. **김윤호 기자**

금산기적의도서관, 북스타트 책꾸러미 면지역 발송

금산기적의도서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외출이 힘든 면지역 영·유아 116명을 위해 최근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하 아이는 그림책 2권·손수건·가이드 북이 들어있는 북스타트기방을, 19개월에서 35개월까지의 아이는 그림책 2권·크레파스·스케치북·가이드북이 들어있는 북스타트기방을 각각 제공받게 된다. 임시휴관이 끝난 이후부터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예방접종시 보건소에서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북스타트 책꾸러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금산군청 교육가족과 평생교육팀(☎ 041-750-4482)으로 문의하거나, 금산군립도서관 누리집 (<http://library.geumsan.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스타트는 세계적인 독서운동으로 한국에서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지자체의 60%가 참여하고 있다. 금산기적의도서관은 2008년부터 영유아에게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책놀이 프로그램으로 공동육아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중·고·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가장 기초적인 책꾸러미 배부에서 자유롭게 책을 가지고 떠돌며 볼 수 있는 비경쟁 독서토론회까지 다양한 문화활동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김윤호 기자**

춘천시, 관광·외식 산업 전문가 토론회 용산구, 어린이집 방역물품 2차 배부

강원 춘천시가 레고랜드 개장 1년을 앞두고 관광과 외식산업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시는 지난 9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레고랜드 개장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레고랜드 개장에 따른 관광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영주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전영철 한국지역총생연 구소장, 지윤호 강원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송정락 한림성심대 관광외식조리과 교수, 김재호 (주)반아라운드 대표, 김영필 레고랜드 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오유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 118곳에 텐탈마스크를 비롯해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방역물품을 전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배부된 방역물품의 구체적인 수량은 텐탈마스크 2만1434개, 손소독제 1000개, 체온계 118개다. 상자 포장 작업에는 성장현 용산구청장도 동참했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어린이집 118곳을 포함해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70% 가량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은 지난 6일 재개원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구는 다시 무기한 개원 연기를 결정했다. 현재 구 긴급보육 이용 아동은 일 평균 1880명(어린이집별 평균

16명)으로 전체 원생의 43% 수준이다. 지난달 구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방역물품(마스크 550개·손소독제 500개)을 1차로 전달한 바 있다. 구는 이달 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면 3차 지원 물품(마스크 436개, 손소독제 500개)을 추가로 구매·배부할 계획이다. 구는 또한 지난달 16일부터 어린이집 소독을 이어오고 있다. 공공근로인력 2명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작업을 모두 마친다. 같은 기간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안전관리요원이 어린이집 해빙기 안전점검을 병행한다. 성 구정장은 "어린이집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이천시 팟캐스트 시즌2 '이천통해쇼' 10일 첫 방송

시즌1 '안녕, 이천'은 총 10편의 영상과 오디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시즌2 '이천통해쇼' 총 26회 제작될 예정이며 10일부터 1회 20분씩 월 2회 격주로 금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된다. '이천통해쇼'는 담당공무원이 나와 사회자와 함께 민원 발생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설명하고 계한 민원 및 정책 소개로 돌아왔다. 지난해 방송된 이천시 팟캐스트

오디오 뿐 아니라 영상으로 제작돼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이천시의 정책 및 정보를 듣고 싶다면 팟캐스트 방송 플랫폼인 팟백에서 '이천통해쇼'를 구독한 뒤 청취하면 되고 듣기보다 눈으로 즐기고 싶다면 유튜브를 검색해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10일 방송에는 MC로 개그맨 최효중, 아나운서 김명지, 이천시청 도시개발과 조진만 주무관이 출연한다. **오유나 기자**